

“완도 햇 매생이 직거래로 만나보세요”

오는 13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서 판매 실시 직거래 판매장 개설... 1만 3천 상자 판매 계획

완도군은 매생이 생산 어민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 147개 전국 매장에서 '완도 웰빙 매생이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1만 3천 상자(1상자에 10재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러나며 청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무공해' 식품의 대표로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전국 70%가량 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이 풍부

하고 우유보다 40배나 많은 철분이 함유되어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되며,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줘 매생이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좋은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및 인근 사군의 매생이 양식이 증가로 인해 매생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매생이



완도 햇 매생이.

의 효능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타 지역 등에도 판로를 개척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매

생이 생산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영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실시

전동평 군수 직접 소통으로 민원 해결사 역할 특목

영암군은 민선 7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11개 읍·면 순회 방식을 택피,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균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군민과의 대화'는 균정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계획보고와 일률적인 의견 청취시간을 갖는 시간이었던,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현장 중심의 균정을 펼치기 위해 영암읍 복지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소외 계층을 살피고, 주민들의 소중한 민원부터 읍면의 오랜 숙원까지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살펴보고 해결해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빌려, "지난 한해 영암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과 거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영암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영암군의 더 큰 미래를 위한 4대 핵심전략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청년친화



형산단으로 지정된 대불산단이 4차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문화복지산단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전동평 군수를 중심으로 군 산하 일선 여 공직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확인행정'과,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서비스행정'을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충실히 실천해나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마을 현장방문 통해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고, 균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강진, 2019년 마을만들기사업 추가유치로 사업비 10억 확보

강진군은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가 유치해,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강진군 대구면 하저마을, 도암면 용암마을에 2년간 총 10억 원이 지원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국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이 투입된다.

강진군 대구 하저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내 행복사위장, 마을담장 개선,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기초생활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치매교육, 요가교실 운영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또한, 강진군 도암 용암마을은 2018년 공모사업에 도전해 실패했으나 주민의 열정으로 재도전해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기쁨이 더 크다 하겠다.

사업으로는 경로당 리모델링, 보행로 개선, 마을샘 정비, 힐링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해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에 응모해 1차 전남도, 최종 농림축산식품부 주민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12월 최종 선정됐다.

황오연 건설과장은 "고령화된 작은 농촌마을이 이번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윤규진 기자 jin2001@



해남 가학산 휴양림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2015년 조성돼 2016년부터 전문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사진은 관내 아이들이 숲 밧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있는 모습.

해남 가학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록

2020년부터 국비 지원받아...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해남군은 해남가학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유아숲체험시설이 정식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조건과 운영 프로그램, 전문 운영인력 등 법적 등록기준에 대해 서류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산림청장이 등록하게 된다.

가학산 휴양림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2015년 조성돼 2016년부터 전문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유아숲체험원 등록으로 2020년부터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유아숲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 장애우,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을 연

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아숲 지도사, 숲 해설가, 산림치유 지도사 등 산림분야 전문 일자리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가학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은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참나무류가 산재해 있고, 다양한 식물관찰 프로그램과 계절별로 방향식물 심기, 야생화 물들이, 숲 밧놀이 등 실외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목포,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참여자 모집

오는 11일까지 490명 선발

목포시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12개월형) 참여자 490명을 모집한다.

'노인과 노인의 유쾌한 만남'이라 할 수 있는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경증치매 노인, 취약계층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말벗·생활 안전 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목포시노인복지관

(180명), 하당노인복지관(100명), 대한노인회목포시지회(90명), 목포자원봉사자협의회(80명),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40명) 등 5개 기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월 30시간)이며 매월 활동비로 27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75억원을 들여 어년 2천5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진도, 2019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진도군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진도군은 공공시설물 점검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운영중인 공공시설물 480여개소에 대해 2019년도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계절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농업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복합산업시설 등 총 480여개소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진도=한길준 기자 gjhan@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_ **광양**